

“인간존중 정신을 바탕으로 한 의료·행정이어야 한다”

국내 최초의 위암이동검진버스 도입에 성공한
염홍철 대전광역시장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가 대전광역시의 지원으로 '93년 10월부터 실시하게 된 위암이동검진이 행수로 3년째를 맞아 대전시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경제적·시간적 부담 때문에 건강관리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저소득시민을 대상으로 위암을 비롯한 위장질환을 조기발견하여 건강증진에 기여하겠다는 목적으로 시작된 이 이동검진을 성사시킨 주역이 바로 염홍철 대전광역시장이다.

평소 인간존중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는 정신으로 일해 온 염시장을 만나 위암이동검진 실시 배경을 비롯해 대전시민을 위한 보건의료계획을 들어봤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위암이동검진버스를
도입한
대전광역시의
염홍철 시장은
이 버스의 운영을
건협 대전·충남지부에
맡겼다.

• 건강검진 기회 적은 저소득층 시민 위해 이동검진 마련

'93년 10월, 국내에서는 최초, 세계에서는 일본 동경에 이어 두번째로 위암이동검진버스를 도입한 대전광역시의 염홍철 시장은 이 버스의 운영을 건협 대전·충남지부에 맡겼다.

이 버스는 우리 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인 동시에 조기에 발견하기만 하면 다른 암에 비해 완치의 가능성이 높은 위암의 조기발견을 위해서, 그리고 시간적·경제적 부담으로 건강관리에 소홀할 수 밖에 없는 저소득 시민을 대상으로 현지검진을 실시하기 위해 도입되었던 것이다.

이 이동검진을 통해 '93년에는 1천4백여명, '94년에는 6천여명의 저소득 시민, 산업체 근로자 등 대전시민이 위장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이 버스는 원래 위암환자 발견을 위한 것입니다만, 모든 위장관련 질환자를 발견하는데도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94년 한해동안의 검사 결과를 보면, 치료대상의 대부분이 위염·위궤양 질환자들이었고 위암환자는 8명이었습니다. 환자의 수가 몇명인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명에 관계되는 일인만큼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받고, 발견 환자 수가 적더라도 한사람 한사람의 치료에 신경을 써야 될 줄 압니다.』

위암이동검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염홍철시장의 이야기다.

대전시와 건협 대전·충남지부는 지난 한해 동안 검사한 6천여명중 위 관련질환자 700여명에 대해서는 개별 치료토록 통보했고, 그중 위암환자 8명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었던 것.

한편 염홍철 시장은, 『이 검진사업의 목적을 치료보다는 조기발견을 통해



염시장은
“생활이 어려운
위암 진단 시민에
대해서는
시에서 치료비 일부를
보조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조기치료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긴 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위암 진단 시민에 대해서는 시에서 치료비 일부를 보조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입니다.”라고 밝혀, 그의 대전시민 건강에 대한 지대하고 확고한 신념을 느끼게 했다.

• 주5회 순회검진에 올해 예산 1억6천4백만원

대전시의 위암이동검진버스는 관내 각 지역을 주 5회 순회하면서 검진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대전시는 올해 1억6천4백여만원의 운영비를 책정해 두고 있다. 대전시는 또 '93, '94년도 검진결과를 토대로 해서, 위 관련 질환이 남자에게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100인 이상 사업체·일반직장의 근로자, 그리고 저소득층 시민 뿐만 아니라 검진을 희망하는 모든 시민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무료검진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도 세우고 있다.

• 보건소 등, 서민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운영할 터

한편, 염시장은 이외에도 시민을 위한 여러가지 의료서비스 강화책을 강구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모든 공공서비스는 사용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보건소의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취약지역 주민의 이동 무료검진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복지시설의 하나로 치매병원의 설립에 이미 착수했습니다. 그외에도 모든 민간의료서비스 강화와 효율적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대전시민 건강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갖는
 염시장은
 인간존중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시민을 위주로 하는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모든 일의 바탕에는 인간존중정신이 있어야 한다.

이처럼 시민을 위한 행정을 누구보다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염시장에게
 는 남다른 생활철학이 있다.

『어떤 일이든지 인간존중정신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의료나 행정서
 서비스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이 시민 위주로 생각되고 시민 위주로 이루어
 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권위주의는 지양되고 대신에 시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수준의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는 또, 『모든 것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역지사지
 (易地思之)의 정신을 행정·대인관계 등 모든 업무에 적용한다면 시민을
 위한 서비스기관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해 민
 (民)을 위한 행정을 강력히 밀고나가는 그의 추진력을 실감케 한다.

현재 덕성여대 교수인 이종숙씨와 2녀의 가족을 둔 염시장은, 자신의 건
 강을 위해 매일 조깅을 하고 클래식을 즐겨 듣는 매우 의욕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도.

대전시의 위암이동검진도 햇수로 3년째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이것은
 어쩌면 대전시민의 건강을 위한 작은 시작에 불과한 것인지도 모른다. 염
 흥철 시장과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민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의 계획
 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 ☞